

전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 교육·상담 실시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총 7회...대한체육회 지원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승현)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돼 온 선수(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포츠인권 교육 우수 시·도체육회로 인정받아 사업 예산의 전액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화제를 낳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12년 스포츠인권 향상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24개교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지식을 크게 함양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엘리트선수 출신 교수 및 현장 지도자, 스포츠심리학과 생리학을 전공한 일선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풀을 적극 활용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 과정은 매우 색다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체육팀의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먼저 지난 13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정구, 양궁부 선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강사인 안용준 전남도청 펜싱부 감독으로부터 첫 교육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순천북초에서 순천북초와 순천남산초 야구선수들을 상대로 2회째 교육(김갑룡 담양공고 교사·스포츠 생리학 및 심리학 전공·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강사)이 이어졌다. <사진>

20일에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팀인 순천공고 럭비팀을 비롯해 씨름, 유도, 태권도, 우슈콩푸 종목 등 순천공고 운동부 200명을 상대로 박종욱 세한대학교 교수(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강사)가 교육 내용을 전달했다.

양궁 선수 출신인 박종욱 교수는 운동선수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비롯하여 동료들과의 우정 및 국가대표로 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세세하게 들려줬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엘리트 육성에 있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은 선수와 지도자들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 육성에 대한 체계가 더욱 확립되고, 우리도 체육인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도움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11.2 X 26.1 cm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14일 순천북초교에서 개최한 '2012 스포츠인권 찾아가는 교육·상담'.

사진제공=도체육회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 호응

전남체육회 29일까지 24개교 900여명 대상

전라남도체육회가 '선수(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전남도체육회는 순천공고에서 럭비·씨름·유도·태권도·우슈콩푸 등 운동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2 스포츠인권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남 24개교 9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총 7회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대 정구·양궁부와 순천북·남산초 야구 선수들이 1·2회 교육을 받았다.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팀, 27일 해남제일중 펜싱팀, 2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시청각실에서 사이클·롤러팀, 29일 세한대 운동부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체육회가 최근 스포츠인권 교육 우수 시·도체육회로 인정받아 사업 예산 전액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선수 출신 교수 및 현장 지도자, 스포츠심리학과 생리학을 전공한 일선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풀을 적극 활용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 과정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은 "엘리트 육성에 있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 육성에 대한 체계가 더욱 확립되고 전남 체육인 이미지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

10.8 X 20.0 cm